

“오동이 굿즈 어때요” 에버랜드 ‘호호 패밀리’ 이벤트

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태어난 한국호랑이 오동이 테마의 ‘호호(虎好) 패밀리’ 행사를 진행한다. 타이거밸리 연구캠프에서 오동이 앨범 전시, 포토스팟, 고객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파리월드 앞 이벤트존에는 ‘오동이 패밀리 하우스’를 운영한다. 카니발광장 야외무대에서는 댄스공연 ‘오동이 어흥스쿨’을 7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연한다.



## 삼성 vs LG, 'CES 2022'서 신개념 가전·IT 선보여

# AI·로봇·모빌리티...미래 라이프스타일 공개

“인공지능(AI) 아바타와 대화하며 가전을 제어하고, 로봇과 함께 밥을 맞추고, 차량 내에서 캠핑도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리는 미래다. 두 회사는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2’에 참가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TV와 생활가전 등 강세를 보여 온 제품군 외에 AI와 로봇,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분야의 결과물들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 라이프 도우미 ‘AI아바타’ 눈길 영상회의·가사 보조 삼성 봇 공개 LG 옴니팟, 자동차→생활공간 진화 5G+AI 결합 실내의 배송로봇 선배 양자 TV신제품·가전 경쟁도 주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새로운 먹거리들을 대거 공개한다. 1. 삼성전자의 인터랙션 로봇 ‘삼성 봇 아이’, 2.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적용한 삼성전자의 미래 차량 콘셉트, 3. LG전자의 실내의 통합배송로봇, 4. LG전자의 AI 기반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 ‘LG 옴니팟’.



2



3



4

### ●삼성, ‘AI 아바타’·‘삼성 봇’ 공개

삼성전자는 독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아바타’와 새 ‘삼성 봇’을 선보인다. 먼저 집을 하나의 메타버스같은 디지털 세계로 형상화하고, AI 아바타가 현실 세계에서의 고객 위치를 UWB(초광대역통신) 위치 인식 기술로 파악해 가까이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고객과 상호 연결한다. AI 아바타는 사용자가 필요한 일을 대신 해주는 라이프 어시스턴트로, 온디바이스(On-Device) 대화 인식, UWB 위치 인식, 사물인터넷(IoT) 가전 제어 기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는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 2종도 선보인다. 인터랙션 로봇 ‘삼성 봇 아이’와 가사 보조 로봇 ‘삼성 봇 핸디’다. 사용자의 영상 회의를 준비하거나 저녁 식사를 위한 테이블 세팅을 해

주는 시나리오를 선보인다. 이 중 삼성 봇 아이는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하는 로봇이다. 사용자 곁에서 함께 이동하며 보조하는 기능과 원격지에서 사용자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텔레프레즌스 기능을 갖췄다.

삼성전자의 IT·가전기술과 하만의 전장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가까운 미래에 만나 볼 수 있는 차량 내 운전 경험도 선보인다. 증강현실(AR) 기반으로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운전정보, 내비게이션, 도로상황, 위험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이다.

또 차량 내부 카메라를 갤럭시스폰과 갤럭시워치의 ‘삼성헬스’ 서비스에 연동해 스트레스, 졸음, 주의 산만 등 운전자 상태에 따라 조명, 공조 등 차량 환경을 변화시켜 운전 집중도를 높여준다.

### ●LG, 자율주행차 콘셉트 소개

LG전자는 4일 CES 공식사이트와 LG 전자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LG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한 일상을 선보였다.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 ‘LG 옴니팟’도 그 중 하나다.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 뿐 아니라 영화감상,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동차가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LG전자는 ‘LG 클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서브봇’, ‘실내의 통합배송로봇’ 등 5G와 AI를 접목한 로봇도 소개했다. 가상인간 ‘김래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도 다시 한 번 깜짝 등장했다. 특히 뮤직비디오 티저를 보여주며

가수로서 데뷔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 ●TV와 생활가전 신제품도

두 회사는 생활가전과 TV 신제품도 선보인다. 생활가전에선 ‘비스포크 홀’(삼성전자), ‘오브제컬렉션’(LG전자)을 출품하며 디자인 가전 경쟁 확대에 불을 지핀다. 아울러 ‘스마트싱스’(삼성전자)와 ‘썬큐’(LG전자) 등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홈 플랫폼도 선보인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TV 신제품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2022년형 ‘마이크로 LED TV’를, LG전자는 2022년형 ‘LG 올레드 TV’ 라인업을 출품한다. LG전자는 4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올레드 TV 라인업을 공개하고, 차세대 자발광 TV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CJ제일제당, 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글로벌 헤드쿼터와 국내 식품사업 분리



프랑스의 한 대형마트에서 열린 비비고 만두 시식행사.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K-푸드 영토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헤드쿼터(HQ) 조직으로 진화한다.

본사를 글로벌 HQ와 식품한국총괄로 분리하게 핵심이다. 글로벌 HQ에는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등의 주요 기능을 편제한다. 마케팅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메가트렌드를 분석·전파한다. 생산의 경우 제조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해외 생산기지에 이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글로벌 HQ 산하에 식품성장추진실을 신설하고 만두·치킨·김치 등 6대 글로벌 전략제품을 대형화한다. 해외 권역별 추진 전략도 구체화해 올 상반기 영국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식품한국총괄 산하에는 식품영업본부, 디지털사업본부, B2B 사업본부, 한국생산본부, 한국R&D센터 등을 배치한다. 한국총괄의 수장은 김상익 전 식품사업운영 본부장이 맡는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조직을 구축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외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글로벌 종합식품회사의 비전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hy ‘발휘’, 새 모델로 배우 이제훈 발탁



hy가 발효음료 브랜드 ‘발휘’의 새 모델로 배우 이제훈(사진)을 발탁했다. 새 CF에서 이제훈은 활력있는 모습으로, 국내산 6년 근 홍삼에 50년 전통의 발효 기술을 적용한 발휘의 우수한 체

내이용품을 짚고 강렬하게 전한다. 최영택 hy 건강식품CM팀장은 “이제훈씨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역동적인 에너지가 브랜드 콘셉트와 부합해 모델로 선정했다”며 “향후 연구와 품질 강화를 지속해 우수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부부, ‘아너스클럽’ 가입

(주)비와이엔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부부가 대한적십자 1억 원 이상 고객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CHC)’에 새해 첫 회원으로 가입했다. 3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가입식에서 강 회장과 김희열 여사는 각각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 전국 193호, 194호 회원이 됐다. 기부 회원으로는 13번째로 새해 첫 가입자이자 첫 부부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강 회장은 2013년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과 블랙야크 강태선장학재단을 출범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함께 산악인 유족지원, 녹색환경 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 G마켓·옥션, 11일까지 새해맞이 프로모션

G마켓과 옥션은 11일까지 ‘새해맞이 특가 내려온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각종 제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행사는 ‘맛있는 새해맞이관’, ‘슬기로운 새해맞이관’ 2개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맛있는 새해맞이관에서는 건강식품, 간편식, 반찬, 홀파티 음식, 전통주 등 새해 대표 인기 식품군을 준비했다. 슬기로운 새해맞이관에서는 플래너, 캘린더, 청소용품 등 새해 결심 관련 상품을 비롯해 인기 뷰티 상품과 생활용품 등을 선보인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 금호타이어, ‘TCR 유럽 시리즈’ 오피셜 타이어 독점 공급

TCR덴마크·스페인·동유럽도 후원 엑스타 S700·W701 전량 유상 공급 후원 통해 기술력·품질 인정 받아



금호타이어가 2022년부터 ‘TCR 유럽’의 오피셜 타이어로 참가한다. 금호타이어 레이싱용 타이어 (왼쪽)과 2021 ‘TCR 유럽 시리즈’ 경기 장면.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올해부터 ‘TCR 유럽’의 오피셜 타이어로 참가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모터스포츠 기술력의 입지를 다진다.

TCR(Touring Car Racing)은 글로벌 투어링카 레이싱 대회를 이끌고 있는 WSC(World Sporting Consulting) 그룹이 주최하며, 2015년 출범한 양산차 기반의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TCR 대회 중 TCR 유럽을 비롯해 TCR 덴마크, TCR 스페인, TCR 동유럽도 후원하게 된다.

모든 TCR경기는 FIA(국제자동차연맹)가 인증한 동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며 출전 차량은 최고 출력 350마력의 2.0L 터보 엔진과 시퀀셜 변속기 등 완

성도 높은 드라이빙 시스템을 장착해 주행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금호타이어는 대회 참가 차량 전체에 금호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ECSTA) S700, W701’ 전량을 유상 공급한다.

마르첼로 로터 WSC그룹 회장은 “모터스포츠 대회는 고성능 자동차 제조 기술을 뽐내고 기량을 평가받기 가장 좋은

자리이다. 금호타이어는 객관적인 성능 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게 되어 TCR 대회의 공식파트너사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강승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차량과 서킷의 접점인 타이어는 시속 200km 이상을 넘나드는 속도와 압력을 견디며 급제동과 급가속, 급커브 등

극한의 레이싱 상황에서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부품이다. 금호타이어는 TCR 유럽 대회의 파트너사로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후원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극한의 상황에서 타이어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고, 모터스포츠 기술력 이미지를 견고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8년 국내 최초로 개최된 ‘TCR 코리아 투어링카 챔피언십’의 공식 타이어 후원사로 참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F1 경주용 타이어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F1용 레이싱 타이어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포뮬러 기술에서 탄탄한 기본기와 노하우를 갖고 있어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식 타이어로 활약하며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